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엽 및 전폐절제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배기만 · 백효채 · 이두연

비디오 흉강경수술 (Video Assisted Thoracic Surgery, VATS)이 흉부외과 영역에 소개되면서 짧은 시간동안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었다. 비디오 흉강경수술은 통상적인 개흉술보다 흉벽근육의 절개를 극소화함으로써 수술후 통증의 완화, 재원기간의 단축, 합병증 및 유병율 감소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환자는 물론 고령이거나, 폐기능이 저하된 고위험도의 환자에게서도 적합한 수술적 치료법이라 사료된다. 단, 늑막유착이 심하여 흉강경 및 기구조작이 힘든 경우 또는 출혈의 위험성이 많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흉술로 전환하여야 한다.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92년 1월 비디오 흉강경수술을 시작한 이래 1995년 7월까지 37명의 환자들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하여 폐엽절제술 및 전폐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대상환자로서 연령은 20세에서 82세로 평균 42.6세였으며 남녀비는 1:1.3이며 남자 16명, 여자 21명이었다.

질환별 분류를 보면 양성폐질환이 23명으로써 이중 기관지확장증 6명, 결핵종 5명, 과오종 3명, 폐격리증 3명, 경화성 혈관종 3명, 폐국균종 2명, 기흉 1명 이었다. 악성폐질환은 14명으로 수술전 병기가 stage I 이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이중 편평상피암 7명, 폐선암 6명, spindle cell carcinoma 1명 이었으며, 이들중 수술후 병기가 stage I이 9명, stage II가 1명, stage IIIa가 5명 이었다. 수술은 폐엽절제술 32명, 이폐엽절제술 3명, 전폐절제술이 3명 이었다. 평균수술시간은 폐엽절제술 4.37시간, 이폐엽절제술 4.5시간, 전폐절제술 5.16시간 이었다. 수술후 평균재원기간은 부작용이 없었던 환자에서 11.19일 이었다. 수술후 합병증으로 농흉이 2명, 지속적인 공기누출이 2명, 수술창상부위감염이 2명 있었고 수술사망율은 없었다.